

기독교 진리론의 모색

이경직 *

논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기독교 진리론을 모색하는데 있다. 우선 진리 기준에 대한 세 가지 이해를 비판적으로 다룬다. 대응설에 따르면 그 기준은 현재나 과거의 사실이 판단과 일치하는 것이며, 정합설에 따르면 그 기준은 판단이 미래 사실과 일치하는 것이며, 실용주의 진리설에 따르면 판단이 참된 판단들로 이루어진 기존 체계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 글의 테제에 따르면, 기독교 진리론은 진리의 인격적 측면을 보는 반면 세 종류의 진리설이 진리를 비인격적으로 여긴다. 이 글은 세 종류의 진리 기준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야 한다는 점을 보이려고 한다. 기독교 진리론 안에서 세 가지 종류의 진리기준은 상호보완적이다. 마찬가지로 진리를 파악하는 수단으로는 경험, 이성, 경험과 이성 양자, 해석, 권위가 있는데, 모두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보완적이다. 하나님은 진리를 알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 한 수단이나 측면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또한 세 가지 종류의 진리론이 진리를 부분적으로 드러내지만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하는 이유도 설명한다. 부분적으로 진리를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반은총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아는 감각(sensus divinitatis)을 주신데 있다. 진리를 완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는 진리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인간의 죄에 있다. 따라서 기독교 진리론의 목표는 왜곡된 인식론을 바로잡고 세속 인식론들에게 포괄적인 진리 기준과 진리 획득 방법을 제시하는데 있다.

핵심 주제 : 진리, 기독교 인식론, 하나님을 아는 감각, 대응설, 정합설, 실용주의 진리설.

* 천안대학교 기독교철학과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인식론의 물음들
III. 나가는 말

I. 들어가는 말

인식론(epistemology)은 말 그대로 인식 또는 지식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지식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와 같은 물음이 인식론에서 큰 물음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바깥 대상만 본다. 우리의 관심이 바깥 대상에 머물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한다. 이 때 우리는 그 대상이 당연히 있다고 여긴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신의 일차적 활동은 존재론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정신은 자신이 파악하고 이해하는 대상이 당연히 있다고 전제한다.

그런데 우리가 오류를 경험하는 경우가 생긴다. 멀리 있는 오아시스를 보았다고 믿었는데, 실제로 그 장소에 가 보니 오아시스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우리는 우리가 본 대상이 실제로 있다고 믿었던 우리의 생각이 잘못이라고 판단한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전제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셈이다. 이 경우 우리는 바깥 대상이 무조건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달리 말하자면, 바깥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 긍정에 의문을 던진다. 내가 보는 것과 실제로 있는 것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바깥 대상에 놓이지 않고 그 대상을 보는 우리의 인식능력에 놓인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생각 과정, 생각의 가치에 대해 반성할 때 인식에 대한 이론, 즉 인식론이 생겨난다. (앙드레 베르제스, 데니스 위스망, 1988: 107)

이 글에서는 인식론과 관련하여 진리론의 중요한 물음들을 소개하고, 그 물

음들에 대한 세 가지 답변들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각 답변들의 장단점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기독교 인식론, 특히 개혁주의 인식론이 세 가지 주요 인식론적 입장들과 어떤 관계에 놓이며, 그 인식론적 입장들의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II. 인식론의 물음들

진리론에서 중요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1) 진리의 본질은 무엇인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2) 이 기준들을 적용하여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3) 진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글에서는 앞의 두 가지 물음을 우선 다루고자 한다.

1. 진리의 본질과 기준

첫 번째 물음의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있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거나, 있지 않는 것을 있다고 말하는 것이 거짓이며, 있는 것을 있다고 말하거나 있지 않는 것을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참이다.”(Aristoteles, *Metaphysica*, 1011b) 달리 말하자면, 객관적 실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판단이 참이며, 그렇게 파악하지 못한 판단이 거짓이다. 따라서 판단 또는 명제의 참 또는 거짓은 그것이 객관적 실재나 대상과 일치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서 스킨너 철학자들은 ‘참’을 ‘사물과 지성의 일치’(adequatio rei et intellectus)라고 표현했다. (소광희, 이석훈, 김정선, 1983: 44)

현대 철학자 타르스키(Tarski)는 이러한 고전적 진리 개념을 의미론적 차원에서 다시 정의한다. (Alfred Tarski, 1944) 그에 따르면,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다”는 판단이 참이다”와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는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후자가 참이면 전자는 언제나 참이며, 전자가 참이면 후자는 언제나 참이기 때문이

다. 두 명제 모두 모든 경우에 진리치가 같기 때문에 의미론적으로 볼 때 동치(同値)이다. 달리 말하자면, ‘참이 어떤 판단에 술어로 붙는 경우 그 판단의 본래 의미를 바꾸지 않는다.

그런데 두 가지 표현에는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일까? 타르스키에 따르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는 명제가 다루는 대상은 현실 세계에 있는 것인데 반해,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는 판단이 참이다”는 명제가 다루는 대상은 현실 세계에 있는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다’는 판단이다. 그는 앞의 표현을 대상언어로, 뒤의 표현을 메타언어로 구분한다. 따라서 ‘참’은 대상에 대해 붙는 술어가 아니라 대상에 대한 판단에 대해 붙는 표현임을 알 수 있다. (소광희 외, 1983: 44-45)

그래서 우리는 실재(또는 존재)와 진리를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책상은 존재하지만 참은 아니다. ‘참된 선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처럼 대상 자체에 대해 참과 거짓이라는 말을 쓸 때 ‘거짓 선지자’는 ‘선지자가 아닌 자’, 즉 선지자라는 특성이나 가치를 지니지 못한 자를 가리키는 표현일 뿐이다. 이와는 달리 원래 참과 거짓은 대상 자체에 대해 적용되기보다 대상에 대한 판단에 적용되는 가치이다. 달리 말하자면, 참과 거짓은 대상이나 대상을 나타내는 개념에 적용되지 않고, 그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판단하는 명제(proposition)에 적용된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08-109) 지식은 명제로 표현되는 판단으로 이루어지기에 지식이 참되고 그른 것은 판단이나 명제가 참되고 그른 것이다(소광희 외, 1983: 44).

그런데 어떤 명제를 참 또는 거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 이 물음은 진리의 의미에 관한 물음보다 더 중요하다. 진리의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진리 개념도 다르게 정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크게 세 가지 대답이 있었다. (1) 대응설(correspondence theory), (2) 정합설(coherence theory), (3) 실용주의(pragmatism) 진리설. 이제 그 대답을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자.

(1) 대응설과 문제점

대응설에 따르면, 명제의 진리는 그 명제가 객관적 실재와 대응하는지에 따라 판정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니고 있는 견해이며, 판단과 실재의 일치라는 고전적 진리 정의(定義)와도 일치한다. 대응설은 실재론(realism)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대응설에 따르면, 진리의 기준은 우리 밖에 객관적으로 있는 사실이나 존재에 있다. 따라서 참된 판단을 내리려면 그 판단이 다루는 대상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일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과학자들은 자연에서 작용하는 법칙들이나 사실들을 발견하고자 한다. 이 때 그들은 자신들이 발견하고자 하는 법칙들이나 사실들이 이미 자연 속에 있다고 전제한다. 예를 들어, 관성의 법칙은 과학자들이 그 법칙을 발견했던 발견하지 못했던 관계없이 태초부터 이미 자연 속에 있었다고 전제된다. 또한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법칙들이나 사실들이 많은데, 과학자들은 그 법칙들이나 사실들이 우리에게 발견되지 않은 채 자연 속에 있다고 여긴다. 따라서 과학자의 사명은 이렇게 발견되지 않은 채 있는 법칙들이나 사실들을 찾아내는데 있다.

대응설은 우리의 상식에 일치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잘 설명해준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닌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큰 약점을 지닌다. 판단이 실재를 충실하게 반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12.) 판단과 실재를 비교할 때 비로소 판단과 실재가 대응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비교할 수 없다면, 우선 우리는 실재에 대한 지식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결국 우리의 판단과 실재를 비교하는 일은 우리의 판단과 실재에 대한 우리의 지식, 즉 또 다른 판단을 비교하는 일이 된다. 두 번째 판단이 참인지 확인하려면 실재에 대해 또 다른 판단을 내리고서 그 판단과 비교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은 무한히 소급될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판단과 실재를 비교하기보다는 판단과 판단을 비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소광희 외, 1983: 46)

(2) 정합설과 문제점

이와 같은 비판을 고려한 진리론은 정합설이다. 정합설에 따르면, 진리의 기준은 판단들이 서로 정합적인지, 즉 무모순적(*consistent*)인지에 놓여 있다. 어떤 판단이 참인지 알려면, 그 판단이 지금까지 참이라고 받아들여지는 판단들 또는 판단들의 체계와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면 된다. 현실 세계와 아무 관계 없이, 달리 말하자면 현실의 시간을 넘어서는 순수공간에서 성립하는 형식과학에서, 예를 들어 수학이나 논리학에서 진리의 기준은 정합성(*coherence*) 또는 무모순성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기하학에서 한 명제가 참이 되려면, 그 명제는 당연히 참되다고 전제되는 기하학의 공리들(*axioms*)과 모순되지 않아야 한다. “ $3x = 5 - 2x$ ”라는 등식을 “ $5x=5$ ”로 변형시킬 때, 이는 “등식(等式)에서 양변에 각기 같은 것을 더해도 그 결과는 같다”는 유클리드 공리에 토대를 둔다. 이 공리에 따라, “ $3x = 5 - 2x$ ”는 양변에 $2x$ 를 각기 더한 결과인 “ $3x + 2x = 5 - 2x + 2x$ ”와 같다. 두 번째 등식을 단순하게 만든 “ $5x=5$ ”는 “ $3x = 5 - 2x$ ”와, 그리고 위에 언급한 유클리드 공리와 모순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유클리드 공리가 옳은 한, 그리고 “ $3x = 5 - 2x$ ”가 옳은 한, “ $5x=5$ ”가 옳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추론의 학문인 논리학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로부터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모순 없이 추론해냄으로써 그 사실들을 우리의 지식 속에 추가한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40)

우리의 지식이 단편적이지 않고 체계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합설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사실 우리가 얻는 지식은 대부분 직접 경험하는 지식이기보다 기존에 참이라고 여기는 지식들에 토대를 두고 모순을 준수하는 이성적 추리를 통해 얻는 지식이다. 또한 과학이론이 복잡할수록 그 이론의 참, 거짓 여부를 일일이 직접 경험에 따라 판정하기보다, 기존에 참되다고 인정된 이론과 모순되지 않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하게 된다. (소광희 외, 1983: 47) 매우 고차적이고 추상적인 이론의 참, 거짓을 따지기 위해 그 이론을 이루는 판단들을 그 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직접 경험과 비교해본다면 경제성의 원리

(principle of economy)에도 어긋날 것이며, 실제 과학자들의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

하지만 정합설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정합성만 진리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서로 모순 없는 판단들로 이루어진 체계라 해도 그 체계가 실재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참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버트란트 러셀(Bertrand Russell)이 잘 지적했듯이, 정합적인 체계가 하나밖에 있을 수 없다고 여길 이유는 없다. 철학이나 과학에서 같은 주제에 대해 서로 상반되지만 그 자체 모순을 지니지 않는 가설들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물리학에서 우주를 이루는 기본 단위를 파장(에너지)로 보는 가설과 입자로 보는 가설은 모두 그 자체에서는 모순 되지 않고 일관된 체계를 지닌다. 둘째, 한 판단이 참인지 여부를 결정해주는 기존 판단 체계가 참인 것은 정합성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그 체계의 가장 근본적 원리나 전제로 작용하는 판단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판단이 없기에, 이 지점에서 정합성이라는 진리 기준은 더 이상 작용하지 못한다. 이 경우 정합적 판단 체계의 근본을 이루는 판단이 참임은 정합성과는 다른 진리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합설은 모순율을 전제하는데, 모순율이 참임은 정합성에 의해 결정될 수 없다. (소광희 외, 1983: 47) 러셀의 지적처럼, 만일 모순율이 거짓이라면 어떤 것도 다른 것과 모순된다고 말할 수 없다. (B. Russell, 1998: 123)

(3) 실용주의 진리관과 문제점

19세기 미국에서 진리의 기준을 유용성 또는 실용성(utility)에 두는 입장이 나타났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합설의 단점은 판단 체계 전체의 근본을 이루는 근본적 판단이 참된 기준을 정합성에서 찾을 수 없다는데 있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다시 대응설처럼 실재와 일치하는데 두어야 할 텐데, 이 때 실재를 무엇으로 삼느냐에 따라 대응설적 진리관과 실용주의 진리관으로 갈라진다. 과거에 있었거나 현재 있는 것을 판단의 참, 거짓을 조화하는 최종 대상으로 삼는다면

대응설적 진리관을 따르게 된다. 이의는 달리 미래에 있을 것을 판단의 참, 거짓을 조화하는 최종 대상으로 삼는 경우 실용주의 진리관을 따르게 된다.

실용주의 진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지식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생활의 수단 또는 도구이다. 그런데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우리에게 언제나 호의적인 것은 아니다. 환경은 우리가 가는 길 앞에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존 듀이(John Dewey)는 이 장애물을 ‘문제’(problem)라고 부른다. ‘problem’의 어원인 헬라이어 *problemata*는 ‘앞에’(pro) ‘던져진 것’(blemata)라는 뜻을 지닌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 앞에 장애물로 놓인 것이 문제이다. 이 문제는 사람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 문제는 각 사람이 유일하게 경험하는 것이며, 따라서 해결방안 역시 보편타당한 방식보다 각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용주의 진리관은 진리의 실존적 측면을 강조했다고 여겨진다.

실용주의 진리관을 처음 주장한 피어스(Charles Sander Peirce, 1839-1914)에 따르면, 어떤 개념의 의미를 정확히 알려면 그 개념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피어스의 의미론적 논리학에 심리학적 경향과 생물학적 경향을 덧붙인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와 듀이(John Dewey, 1859-1952)는 인간의 사고나 지성뿐 아니라 지식도 인간이 새로 겪는 불확실한 환경에 적응하는데 쓸모 있는 도구로 여긴다. 우리는 문제 상황 앞에서 그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 때 내리는 판단은 아직 참인지 거짓인지 확정되지 못한다. 이 판단은 아직 가설이라는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 방안을 문제 상황에 적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쓸모 있음이 드러날 때에야 비로소 그 판단은 가설의 지위에서 벗어나 참된 판단이 된다. 한 판단의 참, 거짓은 그 판단의 결과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미래 시점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실용주의 진리관은 우리가 실제 자체나 이론 자체에만 머물지 않고 구체적인

삶과 실천에서도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점을 밝혀준 점에서 커다란 공헌을 했다. 실용주의 진리관이 잘 보여주듯이, 참된 판단 또는 명제라면 존재 차원이나 존재에 대한 판단들로 이루어진 이론 차원에서 타당할 뿐 아니라 인간이 실제 세계와 관계하는 삶 또는 실천에서도 타당해야 한다. 그 진리관은 판단의 참과 거짓이 과거나 현재의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나 기존에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지식들과 정합적인지 여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에도 달려 있다는 점을 잘 부각시켜주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시대에 언제나 참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보아야 하며, 그 적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판단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져야 한다는 점도 잘 지적해주었다. “내가 천사의 말을 할찌라도 (실천적)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팽과리가 되는”(고전13:1) 것처럼, 아무리 보편타당한 진리라도 적용되지 않으면 진리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없다는 점이 실용주의 진리관에서 잘 지적되었다. 이는 지식에 이론적 지식뿐 아니라 실천적 지식도 포함시키고자 한 플라톤(Platon)이나 기독교의 정신과도 일치한다. 지식과 진리를 실생활과 연결시킨다는 점이 바로 이 진리관의 장점이다.

하지만 실용주의 진리관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난다. 첫째, 제임스나 듀이가 말하는 실제적 효과나 성공적인 환경적응 또는 문제극복은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잘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실제적 효과, 즉 유용성의 기준이 무엇인지 논리적으로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어떤 것을 더 좋은 효과로 여겨야 하는지는 각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더 좋은 효과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각 사람의 서로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금전적 이익을 얻는 것과 명예를 지키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좋은 효과인지에 대해서도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으며, 이 답변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드러낸다. 플라톤이 『국가』(Politeia)에서 이상국가를 이루는 세 계층을 구분할 때 각 계층이 추구하는 목적이, 달리 말하자면 각 계층이 자신에게 가장 좋다고 여기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 크게 고려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임스 자신도 너무 애매모호한 유용성 개념을 그대로 두었다. 그에 따르면, 어떤 방식으로든 유용하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양심을 주고 정당한 삶을 갖게 해주는 정치적 신념은 참된 신념이다. 내면의 불안을 씻어주고 지적 만족을 보장해주는 철학 이론이라면 참되다. 신 개념도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한에서 참이다. 그래서 제임스에 따르면, “신이란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이 경우 진리는 이성의 가치가 아니라 인간 실존의 가치가 된다. 그래서 생뉘쉴리(Saint-Exupéry)에 따르면, “인간에게 진리는 그를 인간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다.” (Saint-Exupéry: 252-253, 245;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15에서 재인용)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가치와 문화가 인간의 진리가 된다.

둘째, 이와 관련하여서 지적할 점이 있다. 때로 진리는 불행한 것일 수도 있다. 르낭에 따르면, 진리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기존에 있는 열정과 성향, 습관을 버리거나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진리는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기보다 고통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출신 배경에 대해 모르고 행복하게 지냈던 오디푸스 왕이 자신이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여 두 자녀를 낳은 패륜이라는 진실을 알았을 때, 그 진리는 그에게 행복과 위안 대신 큰 고통을 주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행복과 기쁨을 주는 것이 진리라는 실용주의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15-117)

셋째, 실용주의 진리관에 따르면, (미래에 이루어질) 목적이 (현재 사용되는 판단인)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데 목적이 언제나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통해 한 생명을 구했다고 해서, 즉 거짓말이라는 수단이 생명 구출이라는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거짓말이 진리인 것은 아니다. 그 경우 거짓말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리관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미래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수단이 되는 판단 자체가 참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넷째,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듯이, 미래의 어떤 시점을 가

설 성격의 판단이 참 또는 거짓으로 확정되는 시점으로 잡아야 하는가는 어려운 일이 실용주의 진리관에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을 집행하는 담당자가 내리는 판단은 그 이후 1년 동안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하지만 10년 뒤에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시 100년 뒤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현재 내리는 판단의 진리를 확정해주는 미래 시점을 정하는 기준조차 실용주의 진리관에는 없다. 실용주의 진리관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다”는 말이 모호한 것과 같이 모호한 진리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판단의 결과가 유효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참이라고 여기기보다, 그 판단이 참이기에 그 결과가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어떤 판단이 참이기에 그 결과가 유효하다고 여기는 경우, 미래의 특정 시점이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결국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그 판단에 따라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다섯째, 실용주의 진리관에 따르면, 각 개인이 각 개인에게 고유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험이 다르면, 진리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보편 타당한 진리나 지식을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 실용주의 진리관을 극단적으로 밀고나간다면, “만물의 척도는 인간 개인이다”(homo mensura)는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의 극단적인 상대주의 진리관 또는 회의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소광희 외, 1983: 48-49.) 그런데 각 개인에 따라 진리가 결정된다는 생각은 실용주의 진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우리의 문제 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보다 방해가 되는 것 같다.

(4) 기독교적 진리관

기독교에서 ‘진리’는 ‘사물과 지성의 일치’(adaequatio rei et intellectus)라는 비인격적 규정에만 머물지 않는다. 그 일치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 원인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도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그래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을 진리이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진리¹⁾로,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1)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등.

영'이라고 표현한다. 대응설과 정합설, 실용주의 진리관 모두 나름대로의 진리 기준을 내세웠지만, 대응설의 경우 판단과 실재가 서로 대응할 수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고, 정합설의 경우 판단과 판단이 서로 모순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더 나아가서 모순율이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실용주의 진리관의 경우 판단과 미래의 결과가 서로 일치할 수 있는 이유를, 더 나아가서 판단을 내리는 현재와 판단의 결과가 나타나는 미래가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현재의 판단과 미래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기 위해 전제되어야 하는 세계의 연속성, 기억을 통한 의식의 연속성 등이 어떻게 가능한지도 설명하지 못했다. 달리 말하자면, 진리의 기준에 대해 설명하는 세 가지 입장은 진리가 나타나는 현상들에만 주목하지 그 현상을 넘어서 진리를 가능하게 하는 진리 자체에 대해 주목하지 못한다. 바로 이 점이 기준 세 가지 진리설의 한계라고 여겨진다.

우리가 현상을 넘어서 있는 진리 자체에 시선을 돌린다면, 세 가지 진리설을 서로 배타적인 선언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진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여길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입장을 취하는 경우, 다른 진리설을 자신의 진리설과 양립할 수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각 진리설에 생기는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각 진리설의 장점은 다른 진리설의 단점이기도 했다. 각 진리설의 단점은 그 진리설을 절대적 진리 자체를 드러내는 한 가지 측면으로 여기지 않고, 그 진리설을 절대화하는 데서 생겼다.

기독교적 진리관은 실재론(realism)을 받아들인다. 데카르트가 잘 보여주었듯이, 인식하는 주체인 인간이 바깥 대상인 세계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동시에 그 세계가 인간의 인식기관에 올바르게 나타나도록 보장해 주신다는 데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속이기를 즐겨하는 악마(devil)와 같은 존재가 아니다. 흄(Hume)이나 칸트(Kant)가 잘 보여주듯이,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배제하는 경우 인식론적 차원에서 인간은 실제로 있는 세계를 파악할 수 없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초월적

하나님마저 알 수 없다. 그 경우 인간의 판단이나 언어는 실제 세계를 반영하지 못하며, 그저 인간의 관념(idea)이나 구성물(construction)을 나타낼 뿐이다. 이러한 입장은 결국 인식론적 상대주의나 회의주의로, 언어 회의주의로 빠지며, 초월적 영역도 포함하는 종교를 인간의 객관적 인식과 무관한 주관적인 것으로 삼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종교적 반지성주의는 신학의 토대에서 객관적 인식은 배제하고 주관적 ‘감정’과 ‘체험’만 인정하려는 결과를 낳는다. (로날드 내쉬, 2001, p.11-12) 이는 결국 극단적 상대주의에 이르며, 훗설(Husserl)이 잘 지적하듯이, 인간이 자아(Ich)라는 의식의 섬에 갇히는 결과를 낳는다. 정합설의 문제점에서 잘 드러났듯이, 나의 자아가 구성하는 체계가 아무리 정합적이라 할지라도, 그 체계 자체가 실제 세계를 반영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자아가 구성하는 체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다. 이는 지식의 보편타당성을 부정함으로써, 지식 개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것이다.

진리 자체가신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정말 있는 세계이며, 우리의 경험은 실제로 있는 세계를 잘 반영한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그 판단이 다루는 사실과 일치하는 경우 참이라는 진리 대응설이 옳게 된다. 그렇다면 진리 대응설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 우리의 경험이 때로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된 경험일 수 있다는 문제였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이 때로 착각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것도 경험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경험과 실제 사실이 일치할 가능성은 우리가 같은 대상이나 사실에 대해 같은 경험을 많이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높아진다. 경험을 통해 내리는 판단과 실제 사실이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일은 논리적으로 100퍼센트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경험을 통해 내리는 판단과 실제 사실이 일치할 때 그 판단이 참이라는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떤 판단과 실제 사실의 일치를 언제나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거 지나간 사실들을 지금 직접 경험할 수 없다. 이 경우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 경험한 사람들의 판단이나 보고를

살펴보면서 그 보고들의 정합성을 따져 볼 수밖에 없다.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적이 있다”는 역사적 보고와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적이 없다”는 역사적 보고가 있을 경우, 우리는 두 보고 가운데 한 보고가 틀렸다고 여겨야 하며, 시저에 관한 그 밖의 다른 보고들이 두 보고 가운데 어느 보고와 정합적인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 또한 경험을 넘어서 있는 영역들, 예를 들어 수학이나 논리학과 같은 영역에 대해서는 모든 수학적 판단이나 논리학적 판단에 판단과 사실의 일치라는 대응설적 진리기준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앞서 말했듯이, 이는 경제성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수학이나 논리학의 공리를 이루는 판단이 사실과 일치함을 보여줌으로써 공리와 같이 근본적인 판단이 참임을 밝힌 다음, 나머지 판단들은 이미 참으로 확인된 공리와 모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나머지 판단들이 참임을 밝힐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대응설적 진리관이 전제되어야만 무모순성이라는 정합설의 진리 기준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에서 두 기준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또한 판단과 사실의 일치라는 진리 기준에서 사실이 현재나 과거에 확정되지 않고 미래에 가서야 확정되는 사실일 수 있다. 그 경우 사실이 미래에 확정되는 시점에 그 사실에 관한 판단이 참인지 여부가 확정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어떤 영역에서 현재 사실과 미래 사실의 일치 여부가 진리를 결정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진리정합설이 주장하는 정합성 또는 무모순성이라는 진리 기준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다”는 판단과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죽을 것이다”는 판단 가운데 한 판단은 반드시 미래 특정 시점에 틀릴 것이다. 두 판단은 서로 모순되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시고 유지하시며 그 세계가 인간에게 올바르게 인식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사실의 일치라는 대응설의 진리기준이 유효하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조명설(照明說)이 이점을 잘 지적한다.

우리의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칠흑 같이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시력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우리의 인식 과정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시는 분이 바로 절대자 하나님이다. 또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듯이, 정합설이 진리 기준으로 제시하는 정합성 또는 무모순성(consistency), 그리고 그것의 원리인 모순율(principle of non-contradiction)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세계와 그 안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이는 모순율에도 적용되는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인간의 언어로 쓰여 있다. 그런데 모순율을 무시한다면 인간의 언어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는 사람인 동시에 사람이 아니다”는 명제는 어떤 의미도 전달할 수 없다. 이 명제는 소크라테스가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 긍정하는 동시에 부정하기 때문이다. 위의 명제가 의미를 지니려면, 시간이나 관점 등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4세기에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이 아니다”는 방식으로 해석되어야 의미 있는 명제가 된다.

또한 현재 세계가 미래에도 지속되어 연속성을 지닐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또한 미래 시점에서 나타날 효과를 현재 판단과 비교할 수 있도록 인간에게 기억을 보장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현재 판단을 내리는 자아(自我)가 미래 시점의 효과를 발견하는 자아와 같은 자아이도록 보장해주는 분도 하나님이다. 따라서 실용주의 진리관도 하나님 덕분에 성립할 수 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한 가지 진리기준을 절대화하는가? 기독교에 따르면, 아담의 타락을 통해 인류에게 들어온 죄 때문이다. 죄가 사람의 마음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바둑을 둘 때 상대방의 대마를 잡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히는 경우 바둑판을 보면서 바둑판의 현실을 잘못 파악할 수 있다. 그와는 달리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는 관전자는 평소 바둑

급수보다 한 급 높은 수준에서 바둑판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기독교인은 왜 진리의 기준을 부분적으로나마 찾을 수 있는가?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감각(sensus divinitatis) 덕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써 거듭난 기독교인은 여러 가지 진리 기준을 가능하게 하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앎으로써 부분적 진리 기준에서 벗어나 통합적이고 온전한 진리 기준을 지닐 수 있다. 여기서 기독교 인식론의 우월성이 드러난다.

그런데 기독교적 관점에서 대응설, 정합설, 실용주의 진리설의 진리 기준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진리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달리 말하자면, 대응이나 정합이나 실용과 같은 진리기준을 진리기준으로 성립시켜주는 것은 무엇일까? 손봉호 교수의 제안에 따라 그 기준을 진실성(truthworthiness)에서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대응이나 정합이나 실용과 같은 진리기준들은 사실 그것들이 참된 가치를 준다는 점에서, 변치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기 때문이다. 진실성이라는 기준이 과연 기독교적 기준인지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는 따로 지면을 빌어 글을 써야 할 일이다. 이 글에서는 일단 그 가능성을 열어놓는데 그치고자 한다.²⁾

2. 진리를 얻는 방법

앞서 진리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제는 이 기준들에 따라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1) 감각 경험, (2) 이성적 추론, (3) 경험과 이성 양자, (4) 해석, (5) 권위가 제시된다. 또한 이 방법은 무엇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가는 물음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진리 대응설과 실용주의 진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얻는 방법으로 감각 경험을 선호하며, 진리 정합설을 주장하는

2) 2004년 한국기독교철학회에서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과 충고를 해주신 여러분들께, 특히 손봉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얻는 방법으로 이성적 추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1) 경험

진리 대응설이나 실용주의 진리관에 따르는 사람에 따르면, 진리를 얻는 방법은 감각 경험이다. 판단과 사실의 일치가 진리라면, 사실이 판단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인간 밖에 있는 대상이나 사실을 알아야 하며, 바깥 대상이나 사실을 인식하는데 감각 경험 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사에서는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을 경험론자라고 부른다. 경험론자에 따르면, 어떤 판단이 참이려면 그 판단과 사실의 일치 여부가 감각 경험을 통해 검증(verification)되어야 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논리실증주의자 슈리크(Schlick)에 따르면, (판단을 표현하는) 한 명제를 이해하려면 그 명제를 참된 명제로 만들어주는 경험의 사실과 거짓 명제로 만들어주는 경험의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M. Schlick, 142f. 소광희 외, 1983: 160, n4에서 재인용) 경험론자들은 보편타당한 판단을 나타내는 전칭 명제를 만들 때 그 판단과 개별 경험 사실과의 일치의 사례를 계속 모아서 일반적 판단을 끌어내는 귀납(induction)의 방법을 사용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주의에는 약점이 있다. 첫째, 주로 경험론자들이 대응설을 받아들이는데, 경험에만 기댈 때 실재와 일치하는 참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감각기관에 문제가 있는 사람뿐 아니라 감각활동이 정상적인 사람조차도 착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신기루나 착시현상 등이 그러하다. (소광희 외, 1983: 46) 그래서 학자들은 대응설을 소박하다고 표현하며, 대응설이 소박한 실재론(naive realism)을 전제한다고 지적한다. 대응설은 우리가 명제로 표현하는 판단이 겨냥하는 대상이 이미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대상에 대해 판단할 때 그 대상의 속성 등에 대해 묻지만, 그보다 더 앞선 물음, 즉 과연 그 대상이 있는 것인가는 물음에 대해서는 대답하

지 않는다. 두 번째 물음을 던지기보다 바깥 대상의 존재에 대해 긍정하고 들어간다는 점에서 대응설은 소박하다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경험하는 대상이 당연히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소박하다. 그런데 착시 현상이나 신기루 현상이 보여주듯이, 이 전제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둘째, 경험론은 수학적 지식이나 전칭명제(全稱命題)에 대해 참이나 거짓을 보편타당하게 보여줄 수 없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대응설이 전제하는 경험론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이다”와 같은 수학적 진리나, “모든 까마귀는 까맣다”와 같은 전칭명제는 감각경험에 의해 확증될 수 없다. 수학적 진리는 감각을 통해 경험되는 것이 아니며, 전칭명제는 감각경험을 아무리 많이 해도 100퍼센트 확증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칭명제는 언제나 반증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칭명제는 100퍼센트 참된 명제로 검증될 수 없다.

셋째, 같은 대상이나 사실에 대한 사람들의 경험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라 이프니츠의 총족이유율에 따르면, 같은 시각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같은 존재이다. 이는 사람들이 같은 시각에 같은 자리에서, 즉 같은 관점에서 사태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이 놓여 있는 위치에 따라 같은 대상을 서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한다. 자신의 경험이 그릇된 경험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의 경험을 다른 사람의 경험과 비교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공동체의 공통된 경험은 개인의 사적 경험의 오류를 바로잡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국가나 민족 등 각 공동체의 특수한 역사와 문화 등이 공동체의 경험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달리 말하자면, 인간은 순수 사실(brute fact)을 경험할 수 없으며, 이미 가치나 이론이 들어간 사실(theory-laden fact)만을 경험할 뿐이다.

(2) 이성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경험만으로는 수학적 명제나 전칭 명제가 참된 명제임

을 입증할 수 없다. 그래서 소위 이성주의자 또는 합리론자로 불리는 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진리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데카르트나 스피노자와 같은 합리론자에 따르면, 한 판단의 진리는 그 판단 자체에 이미 들어 있으며, 올바른 이성의 소유자에게 자명하게(self-evident) 드러난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인간의 이성에게 명석판명하게(clear & distinct) 드러나는 관념이 참된 관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스피노자에 따르면, “진리는 그 자신에게 있어서 스스로의 고유한 표시(verum index sui)이다(Spinoza, II: 43).” 예를 들어, 그들에 따르면, “ $1+1=2$ ”나 “A는 non-A가 아니다”는 올바른 이성을 지닌 사람에게는 그 판단의 참됨이 자명하게 드러난다.

이성주의자에 따르면, 참된 명제는 이렇게 진리가 자명하게 드러나는 근본적 명제와, 그 명제로부터 논리적으로 모순 없이 도출되는 비근본적 명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는 자명한 일반적 원리를 나타내는 전칭 명제를 구체적인 개별 상황에 연결해주는 개별 사실에 관한 진술과 연결하는 연역(deduction) 방법을 통해 보편타당한 명제를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된 명제는 보편타당한 전칭명제로부터 모순 없이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참된 명제이다.

하지만 이성주의에도 문제점이 있다. 첫째, 이성에 자명하게 드러나는 판단이나 개념이라 해도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우리 이성이 자명하다고 느낀 판단이나 개념이 나중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참된 명증성과 거짓된 명증성을 구분해주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09-111) 이성을 소유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명하다고 느끼는 판단이나 개념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이성주의는 우리가 참되다고 여기는 일부 판단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성주의가 지향하는 보편타당한 판단은 연역법 정신에 따라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판단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 $1+1=2$ ”라는 수학적 판단이 보편타당하다면,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이 판단은 언제나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와 같이 역사적으로 한 번 일어난 역사적 사건을 판단하는 명제는

이성에게 그 자체로 자명하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앞의 명제가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역사적 사건과 일치한다고 믿는다. 그리고 이렇게 믿는 것은 특별한 다른 이유가 없는 한 합리적이다.

(3) 경험과 이성

경험론자의 약점은 수학적 판단이나 전칭 판단이 참임을 검증하지 못한다는 데 있으며, 이성주의자의 약점은 이성에게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참된 판단을 참된 판단의 목록에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그래서 칸트(Kant)와 같은 철학자는 경험과 이성이라는 진리 인식 수단을 모두 사용하고자 한다. 그에 따르면, 한 판단이 참이라면 우선 그 판단은 경험을 통해 들어온 내용을 판단의 재료로 삼아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정신은 바깥 대상에 대해 경험한 것을 수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인간의 정신은 자신의 이성(칸트의 경우 오성)에 있는 범주라는 틀을 사용해서 경험 내용을 구성한다. 따라서 참된 판단은 바깥 실재를 수동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실재를 지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이를 잘 이해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가 화가의 작업과 관련하여 든 예를 살펴보자.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대상을 잘 그려내려면 대상을 있는 그대로 화폭에 담아서 안된다. 실제로 있는 대상은 화가의 눈에 비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는 원근법은 그림의 대상이 실제로 있는 상태와 일치하기보다, 그 대상이 화가에게 나타나는 현상과 일치한다. 그 현상을 제대로 그려내기 위해서는 화가가 실재를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12-113.)

흠이 잘 지적했듯이, 경험이라는 방법에만 의존할 때 뉴턴 물리학과 같은 근대과학은 성립할 수 없다. 사실에 대한 판단을 표현하는 명제는, 예를 들어, ‘모든’이나 ‘그러므로’, ‘와’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이 난다”는 명제와 “연기가 난다”는 명제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 참

인지 확인할 수 있는 명제이지만, “불이 난다. 그러므로 연기가 난다.”나 “만일 불이 난다면, 연기가 난다”(if ..., then ...)과 같은 명제의 진리는 경험만으로 확 인될 수 없다. ‘그러므로’나 ‘만일’은 경험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칸트는 ‘그 러므로’나 ‘만일’과 같은 범주(category)가 경험에 앞서 인간 정신에 선천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여겼으며, 감각을 통해 경험한 내용에 이 범주를 적용하는 일을 인간 이성(오성)이 한다고 여겼다.

하지만 이 경우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인간 이성(오성)이 범주 를 통해 구성한 판단이 실제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다. 칸 트의 경우, 우선 인간 정신이 오성의 범주를 공통되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 났다는 주장은 어떤 근거 위에서 나오는가? 칸트는 이 주장을 전제하지만, 사실 이 주장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을 아는 감각(sensus divinitatis)을 주신 것처럼 오성의 범주도 주셨다고 주장해야 한다. 칸트는 인식 론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때문에 인간 오성의 범주를 통해 구성한 판 단이 실제로 있는 세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다. 칸트에 따르면, 인간 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주관적 틀에 의해 굴절된 세계만 인식할 수 있다. 칸트의 경험적 방법과 이성적 방법을 종합하려는 시도는 판단과 사실의 일치라는 고전 적 진리 정의를 결국 충족시키지 못한다. 또한 진리 대응설에게 있었던 문제가 여기서도 다시 나타난다: 칸트의 경우 판단과 사실의 일치는 사실상 판단과 또 다른 판단의 일치일 뿐이다.

20세기 논리실증주의(logical positivism)은 인식 수단으로 경험을 사용해야 하는 영역과 이성을 사용해야 하는 영역을 나눈다. 논리실증주의자들에 따르면, 수학적 명제나 논리학적 명제는 분석 명제(analytical proposition)이며, 일종의 동어반복(tautology)이다. 이러한 명제가 참임은 이성에게 자명하게 나타나거나, 이성적 추론을 통해 드러난다. 이성적 추론을 통해 참으로 드러나는 명제는 이 성에게 자명하게 나타난 명제에 새로운 내용을 덧붙여주지 않는다. 후자에 숨겨 진 의미를 발견하고 드러낼 뿐이다. 이와는 달리 경험을 통해 참이 드러나는 명

제는 종합 명제(synthetic proposition)이다. 이 명제가 참됨은 이성에게 자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경험을 통해 검증된다.

하지만 논리실증주의자들에게도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진리의 기준으로 내세운 검증 원리는 그들의 기준에 의해 검증되지 않는다. 검증원리는 분석 명제도 아니며 종합 명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검증원리에 맞지 않는 형이상학을 배격한다고 하면서도 또 다른 형이상학을 내세우는 셈이다. (소광희 외, 1983: 161-162.) 또한 그들은 인간에게 의미 있는 명제들을 너무 많이 무의미한 명제들로 쫓아냄으로써 인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의미 있는 많은 언어를 무의미한 언어로 몰아버린 편협성에 대한 반성은 후기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과 그의 철학을 발전시킨 일상 언어학파의 주장에서 잘 엿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칼 포퍼(Karl Popper)는 두 가지 유형의 진리와 두 가지 형태의 합리성을 구분한다. 참으로 간주하는 전제, 즉 공리로부터 순전히 이성적 추론을 통해 구성해낸 판단은 가능성의 세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이며 참되다. 하지만 그 판단의 참됨은 그 자체로 옳은 것도 아니고 그른 것도 아닌 최초의 공리들에 대해 상대적이다. 달리 말하자면, 최초의 공리는 현실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가능성의 세계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참도 거짓도 아니다. 예를 들어, 유클리드 기하학의 평행성 공리와 다른 공리를 세우고 이성적 추론으로 구성한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판단과 실제 사실과의 일치라는 기준에서는 참도, 거짓도 아니지만, 하나의 가능한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이며 합리적일 수 있다. 이러한 형식적 진리와는 달리, 실험적 진리는 경험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어떤 가설을 통해 합리적 체계 속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런데 경험을 통해 이 가설을 검증하는 일은 100퍼센트 이루어질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이 가설은 언제나 반증가능성에 열려 있다. 어떤 가설도 자연에 의해 100퍼센트 확증될 수 없다. 그런 한에서 지금까지 계속 검증되어 왔더라도 모든 가설은 잠정적으로만 참이다. 하지만 자연이 어떤 가설을 반증한 경우 그 가설은 더

이상 합리적이고 참된 가설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포퍼에 따르면, 반증되지 않는 이론을 배척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30-132.)

이를 통해 포퍼는 논리실증주의가 배척했던 많은 영역들을 인식의 대상으로 끌어들인다. 딜타이(Dilthey)와 같은 학자가 정신과학의 방법론은 자연과학의 방법론과 달리 의미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4) 해석

그런데 일회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참인지는 경험이나 이성에 기대어 결정하기 어렵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의 참됨은 이성에게 그 자체로 자명하지도 않고,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험에 기대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 우리는 실제 일어난 사건에 대한 경험 대신, 그 사건에 대한 보고(report)에 대한 경험에 기대어, 그리고 그 보고들 사이의 논리적 무모순성을 체크하는 이성에 기대어 역사적 사건에 대한 판단이 참인지를 결정한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에 대한 보고에는 사건에 대한 판단만 들어 있지 않다.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동시에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2년 또는 4년 내내 같은 캠퍼스에서 언제나 붙어 다니는 한 쌍의 남녀에 대한 보고에는 두 사람이 정답게 손을 잡고 있다거나 포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험적 보고뿐 아니라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비경험적 보고, 즉 해석이 들어있다.

그런데 오늘날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가 객관적이라고 여기는 자연과학에서조차 해석의 비중이 꽤 크다. 인간의 문화와 관습이 자연과학이나 공학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동차는 왜 앞뒤로만 달리고 좌우로 달리지는 않을까요? 사람이 앞뒤로 걷고 게처럼 옆으로 걷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과학자들에 따르면, 해석이 전혀 없이 맨눈으로만 경험하는 사실이란 없으며, 모든 사실은 해석이 들어간, 즉 이론의 영향을 받는 사실(theory-laden fact)이다. 그래서 잘못된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도 다 나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상대방의 좋은 의도를 나쁜 의도로 해석한다. 고양이와 개의 경우가 좋은 예이다. 개는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든다. 하지만 이 동작은 고양이에게 전 투태세로 해석된다. 고양이는 기분 좋으면 꼬리를 내린다. 하지만 이 동작은 개에게 한 판 붙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어떤 틀을 가지고 해석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이러한 틀을 세계관(worldview)라고 한다.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계를 보는 눈’이라는 뜻이다. 역사를 살펴볼 때 인류에게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세계관이 있었다.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데서 출발하는 유신론(theism)도 있었고, 신이 없다는데서 출발하는 무신론(atheism)도 있었다.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고 여기는데서 출발하는 유물론(materialism)도 있고, 세상에는 정신적 존재만 있다고 여기는데서 출발하는 정신주의(spiritualism)도 있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확실한 진리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이성주의(rationalism)도 있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 파악할 수 없는 곳에 참된 진리가 있다고 여기는 비이성주의(non-rationalism)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대 해석학자들은 인식론에서 기존의 학자들이 주목하지 못했던 점을 부각시킨다. 그래서 인식론의 초점을 진리라는 범주에서 의미(signification)라는 범주로 이동시킨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인간 이성의 기능을 이성적 추론을 넘어서 확대 시킨다: 이성적 인간은 명제들을 올바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일 뿐 아니라, 도덕감에 의해 올바른 통찰력에 의해 세계관의 근본을 이루는 공리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달리 말하자면, 이성적 인간은 그의 논증에서 타당성(validity)뿐 아니라 건전성(soundness)도 찾고자 한다. 이 때 공리를 선택하는 일은 이성적 추론을 넘어서 가치의 차원에 이른다. 그래서 파스칼에 따르면, 공리를, 즉 세계관을 선택하는 주체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24)

경험과 이성을 진리를 파악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과학이 걸로 드러난 의미를 파악하는데 관심을 쏟는 반면, 이해(understanding)를 진리 파악 수단으로 사용하는 해석학은 걸로 드러난 의미뿐 아니라 속에 감추어진 의미까지 찾아

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학은 겉으로 드러난 판단에서 외면적 의미뿐 아니라, 그 판단을 과거의 잊혀지고 숨겨진 사실과 연결시킴으로써 내면적 의미까지 드러내고자 한다. 해켈의 역사철학도 현재 역사적 사건의 드러난 의미뿐 아니라, 그 사건에 감추어진 의미를 미래와 연결해서 이해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에 따르면, 한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다음 세대들에서야 밝혀진다. 마르크스도 당대 현실에서 정치적 갈등이라는 외면적 의미뿐 아니라, 계급투쟁이라는 숨겨진 의미까지 해석해내고자 했다. (앙드레 베르제스, 1988: 134-136.)

그런데 해석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석학에는 숨겨진 의미를 밝혀내는 해석이 옳은 해석인지를 검증해주거나, 그 해석이 잘못된 해석인지 반증해주는 기준이 없다. 칼 포퍼가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을 반증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 과학에서 배제시키려 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K. Popper, p.3.)

(5) 권위

그런데 어떤 세계관을 선택해야 하는가? 로날드 내쉬는 이론이라는 기준과 실천이라는 기준을 제시하며, 이론이라는 기준에 (a) 모순을, (b) 외부 세계에 대한 경험, (c) 내면세계에 대한 경험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한다. (로날드 내쉬, 2003: 80-93.) 이는 세계관을 선택하는 기준에 경험이나 논리적 무모순성뿐 아니라 유의미성도 들어가야 함을 잘 보여준다. 우선 해석의 틀이 되는 세계관을 선택할 때 일관성(consistency)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이 일관성은 이론에만 아니라 실천에까지 적용되어야 한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선택한 세계관이 자신의 실제 삶에서 의미 있다고 여겨야 한다. 놀랍게도 자신이 선택한 세계관에 충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이렇게 실제 삶에까지 철저히 자신의 해석 틀에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들 또는 사도들(Apostles)이라고 부른다. 그 사람들은 왜곡된 상태에 있는 인류와 세상을 원래 좋았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해석의 틀로 가지고 있었다. 권

력이나 돈이나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존경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다스려야 한다는 해석 틀을 가지고 살던 당시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그러한 해석 틀이 죄 때문에 왜곡된 것이라고 외쳤다. 자연세계는 인간이 잘 살기 위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대상으로 여기던 사람들을 향해 그들은 그러한 생각이 인간의 죄 때문에 나온 잘못된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에 따르면, 권력이나 돈이나 명예는 지금 그것들을 지닌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잠시 맡겨진 것이다. 그러한 것들을 맡은 사람은 맡겨주신 분의 뜻에 따라 그것들을 잘 사용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그것들을 지니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데 사용해야 한다. 그들에게 있었던 이 해석 틀은 당대 사회의 기존 해석 틀을 뒤집는 혁명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해석 틀을 택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그 해석 틀 때문에 자신들에게 있던 소중한 것들을 버려야 했다. 가족을 떠나야 했으며, 동족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으며, 결국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해석 틀이 옳다고 주장했으며, 그 해석 틀에 따라 철저히 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당대 로마의 위대한 사상가 세네카(Seneca)와 같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는 멋진 말들을 많이 쏟아내었지만 그 자신은 정작 정치적 모반에 참여한 사람이었으며, 처형이 무서워 스스로 독배를 마신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제자들만 그러하지 않았다. 이후 이천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해석의 틀을 참된 해석 틀로 받아들이고 그 해석 틀에 따라 살기 위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봐도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정의로우며 그들이 돈을 가진 사람들에게 대해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20세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칼 마르크스(Karl Marx)조차도 돈이 없어 자신의 딸을 고생시키는 사위에게는 그를 꾸짖는 편지를 썼다고 한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해석 틀을 지니는 사람들끼리 모여 공동체를 이루었으며 그 공동체를 통해 그 해석 틀에 따라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고자 노력했다. 우리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며, 예수님의 삶과 해석 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몸’이라고 불렀다.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주신 해석 틀에 따라 세상을 ‘보고’ 실천해왔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성경’에서 그 해석 틀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대학에서 연구하고 배우고 얻는 지식은 경험적 지식이거나 이성적 추론을 거친 지식이거나 다른 사람의 보고에 기대는 간접적 지식이다. 어떤 강의를 들을 것인가를 선택할 때도 우리는 어떤 분이 강의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한다. 많은 경우 강의 제목보다 강의하는 분이 강의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의 틀로 삼아야 하는 근본 지식을 얻고자 할 때 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줄 분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고 합리적이다. 성경에 따르면, 우리에게 그 지식을 알려주시는 분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며 우주의 모든 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보다 훨씬 더 큰 권위를 지니실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까닭에 기독교 인식론은 경험과 이성적 추론을 인식의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장 근본으로 삼는다. 부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오류이지만, 적합한 권위에 호소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이성적인 일이다. 적합한 권위의 가르침(*didache*)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해서 비합리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

III. 나가는 말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우선 진리 개념과 실제 개념의 차이점에 대

해 설명했다. 진리 개념은 한 대상이나 개념에 대해 적용되지 않고, 판단 또는 명제에 대해 적용되는 것임을 밝혔다. 또한 진리의 기준에 대한 세 가지 입장을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진리 대응설은 과거나 현재의 사실과 판단의 일치률, 실용주의 진리설은 미래의 사실과 판단의 일치률, 종합설은 기존의 참된 판단 체계와 한 판단의 일치률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 글에서 밝혔듯이, 기독교 인식론은 진리를 비인격적인 것으로만 여기는 기존의 세 가지 이론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진리 자체이심을 밝힘으로써 진리의 인격적 측면을 잘 보고 있다. 또한 세 가지 진리 기준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기독교 인식론이 세 가지 진리 기준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세 가지 진리 기준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보완적이다.

또한 진리를 파악하는 수단인 경험과 이성, 해석, 권위도 서로 배타적인 수단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통제(control)하는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도록 해주신다. 문제는 하나의 수단이나 측면을 절대화할 때 생긴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독교 인식론의 출발점은 역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성을 통해 이 말씀의 논리적 귀결을 찾아보며,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그 말씀의 진리성을 경험하며, 겉으로 드러난 말씀 밑에 숨겨진 의미를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하여 해석해야 한다.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 의지해서 성경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성령께 의지하는 일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서 진리의 기준에 대한 이론들과 진리를 얻는 방법들에 대한 이론들이 부분적으로 진실을 드러내면서도 기독교 인식론과 같은 통합적 관점에 이르지 못한 이유도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서 설명했다. 그 이론들이 부분적으로 진실을 드러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감각(sensus divinitatis)을 모든 사람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신데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들이 통합적 시각을 얻지 못한 까닭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가리려는 인간의 죄성에 있다.

참고 문헌

- 로날드 내쉬 (2001),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마음』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_____ (2003), 『신앙과 이성』, 서울: 살림.
소광희·이석운·김정선 (1983), 『철학의 제문제』, 서울: 지학사.
앙드레 베르제스·데니스 위스망 (1988), 『새로운 철학강의 I』, 서울: 인간사랑.
Aristoteles, *Metaphysica*
Popper, K. (2002), *The Logic of Scientific Discovery*, 5th edition, Cambridge: Routledge.
Russell, B. (1998), *The Problems of Philosophy*, 2nd edi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Saint-Exupéry, *Œuvre de Saint-Exupéry*, Collection La Pléiade.
Spinoza, *Ethics*.
Tarski, Alfred (1944), *The Semantic Conception of Truth and the Foundations of Semantics*.

ABSTRACT

A Search for Christian theory of truth

Kyung Jik L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earch for Christian theory of truth. First, the difference between the concept of truth and of reality; the concept of truth is not applied to an object or a concept, but to a judgement or a proposition. Three conceptions about the standard of truth are dealt critically;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rrespondence such standard is the coincidence of judgements with present or past facts, according to the theory of coherence the coincidence of judgements with future facts, and according to the pragmatistic theory the coincidence of a judgement with a system of true judgements.

My thesis is that Christian theory of truth sees the personal aspect of the truth whereas three kinds of theory of truth regard the truth as impersonal: God is the truth itself. I try to show that God must exist in order that three kinds of standard of truth do function properly. Christian theory of truth, I think, can include the three kinds of standard of truth consistently, because these are not exclusive but complementary.

The means of apprehending the truth, that is, experience, reason, interpretation and authority are also not exclusive to each other but complementary. God gives us various methods to know the truth. A problem comes if one sees one means or aspect as absolute. The starting point of christian theory of truth is the words of God who is

also the source of the truth. We should assent to the authority of God's words, try to understand logical consequences of God's words, experience the truthfulness of God's words by applying the words to our lives and interpret the hidden meanings of God's words by help with Holy Spirit, the author of the Holy Scripture. Interpreting Holy Scripture is both apprehending the meanings of God's words and having faith in Holy Spirit who helps us to apply God's words to our lives practically.

Futhermore, I explain why the three kinds of theory reveal the truth partially but do not reach the inclusive theory of truth. The reason why they can reveal the truth partially lies in that God gives everybody the *sensus divinitatis* as a general grace; the reason why they cannot get an inclusive theory lies in the sin of human beings which casts shadow on the truth.

The aim of Christian theory of truth, therefore, is to correct perverse epistemology and to give the secular epistemologies comprehensive perspective for the standard of truth and methods of getting truth. It is also a proclaiming God's salvation in the area of epistemology, that is, in the area of the knowledge and the practice of human beings.

Key words: truth, christian epistemology, *sensus divinitatis*, correspondence, coherence, pragmatism.